

意識發展의 辨證法的 過程(五)

헤겔哲學의 한 顛倒的 應用

梨專教授 裴相河

헤-겔哲學과 맑스理論과의 接觸點에 關한 添言.

왜 그리냐하면 代價업시 物品을 □與하는 商人의 存在를 肯定 할 수 업는 거와 가티 世界는 決코 如實히 肯定할만한 存在가 안이지 새문이다. 世界는 決코 다못 아름다운 것 享樂 할 수 잇는 것으로만 無條件으로 前提삼어지지 안는 까닭이다. 그럼으로 世界享樂의 意識은 只今까지 철모르는 象牙塔 속에 스스로 숨어 조고마한 구멍으로 마춤 빗초이는 푸른 하늘만을 내여다 보고 『오! 世界는 아름답다』라고 盲信하였든 것이 한번 象牙의 塔이 문혀지고 푸르든 하늘에 暴風雨니는 것을 보며 아름다운 自然에 아름답지 못한 人的 動物이 꿈을거림을 볼 새 그것은 넷날의 肯定意識이 얼마나 큰 自己欺瞞이 었든가를 스스로 깨닫고 말 過程的 儀式에 지나지 안는 것이다.

世界를 享樂하자 함은 至當하다 철 업는 어린 兒孩 代價의 與否업시 □자를 먹지 할도 또한 至當하다. 그것은 自然이요, 卞라서 必然이기 새문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吾人은 □□치고 심흐니 ××世界가 果然 우리에게 享樂을 주었느냐? 그러타고 對答할 人的 動物이 잇다면? -이는 空想이다. 그러타고 할 어느 누구도 업슬 것이다. 世界는 享樂의 正反對만을 선사하고 잇다.

享樂의 意識은 主觀이요, 不可享樂의 世界는 客觀이다. □然한 對立이다. 前者는 正이요, 後者는 反이니 이미 이와 가튼 必然的 辨證法的 過程에 自身을 處하였는지라 止揚될 것은 勿論이요, 自然 生成的 法則에 卞라 沒落할 것은 必然이다. 이와 가티 世界享樂의 意識은 必然的으로 崩壞된다.

□上의 論理로써 미루어 볼진대 그와 가튼 철 업는 世界 享樂意識의 產物로써 吾人은 現下의 니르는 바, 『쑤루조아 詩□』 또는 『藝術派』의 存在를 들 수 잇다. 왜 藝術派는 世界 享樂意識의 產物인가? 그네들은 ××世界서 美를 찾자 함으로써 그네들의 根本原理를 삼고 잇기 새문이다. 世界를 그냥 그대로 肯定하고 잇슴에도 不拘하고 그것을 享樂하자는 크나큰 矛盾으로써 그네

들의 根本眞理를 삼고 잇기 새문이다. 그러나 世界享樂의 意識이 이미 沒落의 必然性을 갖고잇는 바에 그것의 產物인 『藝術派』만이 崩壞하지 안흔 理가 萬無하다. 이는 哲學的 必然性으로써 不可避의 結論이다. 그것은 世界의 現實(!)을 沒却한 象牙塔 속의 奇怪한 存在! ××世界에서 美를 차즈려 하엿슴이 얼마나 어리석은 作亂이엿든가들 머지안해서 깨닫고 말 過程的 文學에 지나지 안는다. 世界享樂의 意識 自體가 발서 過程的 意識이기 새문이다. ××世界에서 美를 찾자 함이 都大體 어리석은 作亂이엿기 새문이다. □ 그것에서 美가 생긴다면은 無에서 有를 創造 할 수 잇다는 空想哲學도 또한 成立될 것이 안인가? 環境을 超越 할 수 잇는 存在가 잇다면 別 問題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陰的 陽的으로 環境의 □□을 맞지안흔 수 업다는 것이 眞理 일진대 現下의 所謂 藝術派로써 現實의 環境을 보고도 본체만체하고 그네들만의 象牙塔 속에서 그네들만이 엉키여 □在할 무슨 權限이 잇는가? 그래도 □在할 權限을 主張한다면 이것을 主張하는 無智의 根據는 또한 어디 잇는가? 그럼으로 ××世界의 美를 讚美하는 그네들은 未久에 象牙塔이 문혀져 푸른 하늘에 暴風雨임을 보는 同時에 必然的으로 世界享樂의 意識과 함께 沒落하지 안흐면 안이 될 過程的 文學임이 틀림업다. 웨 그러나하면 藝術派 文學은 世界 享樂意識의 產物이기 새문이다.

世界改造.

世界享樂의 힘업는 意識이 不可享樂의 □然한 對立的 世界로 말미암아 辨證法的 過程에 依하여 必然的으로 沒落 崩壞 쏘는 헤-겔의 말을 빌어 止揚되며 사라 싸이의 產物인 藝術派 文學의 存在도 또한 存在의 □限을 그 以上 더 主張하지 못하게 되엿슬진대 이에 어셔한 辨證法的 슴 다시 말하면 自己意識의 階段이 생겨날 것인가? 이에 쏘차 이□□에 □하는 어셔한 產物이 잇슬 것인가?

이 世界에 잇서서 自己自身을 滿足시키려든 實體의 첫 階段인 世界享樂의 意識이 崩壞한 根本原因은 世界를 如實히 肯定하엿다는 그곳에 잇다. 그럼으로 이에 正反對로 肯定의 意識이 否定의 意識으로 變하지 안흔 수 업게 됨은 必然的 生成法則에 依합니다. 따라서 世界享樂의 意識에서 □□되는 意識도 또한 必然的 存在性을 가질 수 잇는 意識이니 이는 世界 享樂의 意識과 가티 既成世界 그것의 必然性을 그것의 必然性으로써 □容하지 안코 이와 反對로 意識主觀自體로 하여금 客觀的 必然性을 代身하려한다. 換言하면 既成世界 그것의 運命을 그것의 運命으로써 負□하지 안코 이와 反對로 意識主觀自體로 하여금 客觀的 運命을 支配하려 한다. 既成世界 그것의 秩序를 그것의 秩序로써 服從하지 안코 이와 反對로 意識主觀 自體의 主觀的 意志로 하

여곰 客觀的 秩序를 創造하러 한다.